

# 왜 우리는 우유를 북한과 나눠야 하나?



김방희  
통일우유보내기운동 추진위원회  
사무총장

사실 통일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압도하는 주제다. 역설적이지만, 통일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많지 않은 것 역시 바로 이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에게 통일은 모든 논의에 우선한다. 이런 이들에게는 통일의 다양

한 측면을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무조건 달성해야 할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들과 정반대로 현실을 바꾸는 것을 무작정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통일은 정치적 구호에 불과하다고 믿는다. 실체가 불분명한 민족이라는 대의를 위해, 조금이라도 희생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 통일에 대한 이런 극단적 태도로 인해 사실 통일을 두고 진지한 논의는 거의 불가능하다. 감정적 충돌만 찾아진다. 통일에 대한 태도를 두고 정치적 입장이 크게 엇갈리기 시작한 90년대 이후 이런 경향은 더욱 거세어졌다.

그러나 세계 각국이 이미 보여준 증오와 분열, 그리고 통일의 역사를 두고도 가장 바람직한 통일의 모습을 상상하지 않는 것은 이상하다. 통일이 언제 현실화 될 것이냐 하는 어려운 문제는 제쳐두자. 대신 우리에게는 다투지 말아야 할 외국의 예가 있다.

## 세 나라 이야기

극단적인 민족 지상주의자에게조차 배

트남은 좋은 통일의 예가 아니다. 무력 충돌을 동반한 통일이었고, 그 과정에서 엄청난 희생이 뒤따랐다. 적어도 이 점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

독일 통일의 경우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평화적 통일을 이뤘지만, 동서독의 화합적 융합까지는 아직도 거리가 멀다. 심지어 동서독 양쪽에 모두 통일을 후회하는 움직임도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통일의 긍정적 효과 대신 부정적 효과가 더욱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된다는 통일이 별 준비 없이 외부 변수에 의해 급진전된 탓이 크다. 동서독 양쪽이 모든 면에서 서로의 거리를 좁힐 기회가 적었다.

최악은 증오와 분열이 일상화된 경우다. 19세 이후 아일랜드 역사는 기근의 연속이다.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미국으로 몰려든 것도 이른바 감자 기근에서 비롯됐다. 19세기 중순 아일랜드의 주식이던 감자 흉작으로 백만명 이상이 죽고, 또 백만명 이상이 나라를 떠났던 것이다. 당시 영국은 이미 해가 지지 않는 풍요와 번영의 제국이었다. 그러나 영국은 사실상 한 민족이었던 아일랜드의 배고픔을 외면하고 말았다. 그래서 아일랜드인들은 이 일을 결코 잊는 법이 없었다. 종교 차이로 반목하던 영국과 아일랜드, 두 나라를 영

원히 갈라놓은 것은 바로 이 사건이었다.

### “통일우유 보내기 운동”이란?

북한이 아일랜드의 기근에 못지않은 기근을 겪은 지는 10년이 다 돼 간다. 물론 우리는 영국처럼 이 사태를 외면하지는 않고 있다. 사실 최근 들어 남북한 양국이 극단적 대립을 면하게 된 것도 우리의 인도적 식량과 비료 지원이 밑거름이 됐다.

지난 6월 1일은 세계 우유의 날이자, 동시에 북한이 정한 어린이 날이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은 아닐지도 모른다. 우리 낙농가와 북한 어린이의 상황을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는 적어도 그렇다. 우리나라에서 우유는 현재 수요 격감으로 분유재고가 심화되고 있다. 최근 우유는 적정 재고의 두 배 이상 누적되는 경우가 잦다. 설이나 추석 연휴 기간처럼, 수요가 급감할 때는 생산량의 30% 가량이 과잉 공급되기도 한다. 이렇게 남아도는 우유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수요처를 발굴하기 위해 고심 중이다. 반면 북한의 어린이는 영양 부족으로 성장·발육이 더디다. 이미 우리 청소년과의 키 차이는 크게 벌어져 있는 상태다. 최고의 성장·발육 식품인 우유가 북한에는 아예 없다. 단지 극소수의 어린이를 위한 두유가 생산되고 있고, 우리의 사회사업 단체인 굿네이버스가 북한에 제공한 젖소 덕에 소량의 원유를 실험적으로 생산하고 있을 뿐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우유를 북한과 나누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다. 첫째, 남북 경제협력의 새 모델이다. 남북한은 서로 거리를 좁혀야 하지만, 남한의 일방적인 지원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다. 이 경우

심리적 거리는 오히려 더 멀어질 수도 있다. 한국 낙농가에는 경제적 돌파구가 돼 주고, 발육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에게는 영양결핍의 상황을 타계책이 되주는 협력이야말로 남과 북이 모두 윈-윈(win-win)하는 방식이다.

둘째, 남북한의 차이를 줄이는 상징적 통일 구상이다.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가 줄어들어야 진짜 통일이 되듯, 남북한 어린이들이 육체와 정신의 차이가 줄어들어야 실질적 통합이 된다.

셋째, 일방적 대북 지원 논란에서 벗어난 인도주의적 지원 방안이다. 통일우유 지원대상이 북한의 어린이라는 점에서 계층과 지역,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한국인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방안이다.

### 향후 계획

지난 6월 1일을 기해 시작된 통일 우유 보내기 운동은, 우선 광복 60주년이 되는 8월 15일 1차분을 북한에 보내는 것이 단기 목표다. 이를 위해 방송과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국민 모금 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물론 1차는 상징적인 양에 그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부 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 사업처럼 1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남북한 어린이들이 육체적 격차를 극복하는 날까지 계속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당장은 우유 몇 잔이지만, 그것이 남북한의 거리를 좁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우리 모두가 하기에 따라서는, 통일 우유가 베트남의 무력 충돌과 독일의 경제력 격차, 그리고 아일랜드의 증오를 씻을 수 있는 화해와 협력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